

北 선수단·응원단 U대회 참가 호소

윤장현 시장 회견 “광주는 메르스 안전”...세계인들 초청

“광주는 메르스 안전지역입니다. 6년간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선수단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보름 앞둔 18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시, 시의회, 지역 의료기관 등이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하게 선수단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대와 실렘 속에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며 “세계 젊은이의 대축제인 광주 U대회에 140여개국 1만3000여명의 선수단과 모든 세계인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8·21면〉
광주U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특히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150만 광주시민들도 따뜻한 동포애로 환영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난 2006년 광주에서 개최됐던 6·15 통일대축전의 감동을 광주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으며, 반기운 소식을 기다리겠

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어떤 채널로도 불참 의사를 통보받지 못했다.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북한팀 참가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시장은 또 메르스 불안과 관련해선 “광주는 이미 민간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 전문 의료진들이 최일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대회 참가 선수단과 임원진은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시장은 “선수촌과 경기장에 첨단 의료장비와 종합병원 수준의 안심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대회기간 선수단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면서 “광주 U대회를 시민과 함께 반드시 성공시켜 국격(國格)을 높이고, 국가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자 대한민국의 자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황교안 총리 “메르스 선봉에 서겠다”

임명동의안 贊 156·反 120표
첫 일정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사진)를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황 총리 임명안을 제가하고 청와대에서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 모두 마치고 대한민국 제44대 총리로 취임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가 해결된 것이다.

황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메르스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메르스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 등으로 집계돼 찬성률은 56.1%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지도부의 결단으로 표결참여를 결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격리가구 긴급 구호품 전달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18일 보건소 주차장에서 메르스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가구 주민들에게 전달할 긴급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전달받아 옮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메르스합동본부 ‘역학 전문가’ 참여해야

장기화·U대회 대비...환자추적·감염차단 선제 대응
예방의학과 전문의 포함시켜 ‘역학팀’ 별도 구성을

메르스가 장기화에 돌입한데다 광주U대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의 메르스 방역체계를 질병치료 위주의 방역 행정에서 벗어나 환자추적과 감염차단 중심의 ‘역학’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U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회 기간 동안에도 메르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자 추적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 메르스 민간합동

본부’에 예방의학과 역학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재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광주시 민간합동본부에는 모든 분야 의료진이 포진해 있으나 정작 환자 추적 및 전염병 차단의 필수인력인 역학(예방의학)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다.

지역 의료계는 메르스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시와 U대회 조직위는 메르스가 진행되더라도 대회 진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만큼 합동본

부에 역학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함께 수백명에 달하는 광주·전남 지역 내 메르스 자택 격리자의 감금 스트레스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적인 정신치유 프로그램의 가동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 격리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정도지만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관공에서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는 만큼 정신치유 전문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 등과 연계한 정신 케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윤장현 광주시장과 홍경표 광주시사회

장(내과), 윤택립 전남대병원장(정형외과), 문경래 조선대 병원장(소아청소년과)을 공동 본부장으로 한 56명 규모의 메르스 대응 민간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들 중 메르스 감염시 치료 전문가인 감염내과·실장은 5명에 불과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의학과 인력은 전무하다. 예방의학과는 메르스 등 전염병과 관련한 격리·해제 범위 설정, 방역, 차단, 환자 경유지 역학조사 등 전염병 전반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전염병 발생시 필수 방어 인력으로 꼽힌다.

광주지역 한 전문의는 “광주지역에서 아직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확산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철저한 방어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 (062) 605-1115

눈물로 쓴 기억... 한국 여자축구 월드컵 사상 첫 16강 ▶ 20면

本 社 人 事

▶ 이홍재 : 주필

(6월 19일자)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오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이 되게 되고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